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도입

정부, 불법 '강아지공장 퇴출' 등 동물생산업 양지로 이끄는 법률 제정 추진

정부가 불법 강아지 공장 등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동물 생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생산업장을 차리려 정부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생산-유통-판매-사후관리)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하는 취지를 담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돼 동물의 폐사·질병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동물들은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팔리는 1년에 세 번씩 새끼를 낳으며 후사당하는가하면 번식을 위해 발정유도제, 인공수정기구, 불법 마약류 등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생산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미신고 업소를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 고양이, 토끼 등에서 조류, 파충류, 어류 등까지 포함해 개념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유통구조도 개선한다. 현재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질병이 있는 동물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는 등 부당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 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 강화하고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해 유통산업을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에 한해 경매 참여를 허용하고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동물을 사고 파는 거래 방식이 존재한다면 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동물 복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일부 단체는 동물을 사고 파는 거래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지만 경매업 신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끼리도 서로 의견이 나뉘지 않더라"며 "현실적으로 반려동물도매업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다면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경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는 온라인 판매도 허용하고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산업가족 중심의 운송기준만 있는 상태다. 온라인 거래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현재 별도의 기준이 없어 아무나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판매업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구매자에게 표준계약서 서식을 제공하도록 해 폐사나 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동물에게 경매 유통 등의 표현 등을 쓰는 것도 조심스러우나 윤리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의 운송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부분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동물간호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동물치료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 4분기에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 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의료기기 세척 및 청소, 진료시 동물을 잡고 있는 행위 등만 가능했다면 체온 및 심박수 측정·입원 관리·투약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약 8만명, 일본에서는 2만 5000여명이 동물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해 혈압 측정·체혈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자격제도 도입이 새로운 진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현상 보 조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현재 3000명 정도의 동물병원 근무자들이 있는데 예전 복덕방을 했던 인력에 부동산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1~2인 가구를 위한 미니채소 모음전. 농협유통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채소매장에서 미니당근, 미니브로콜리를 출시해 모델이 선보이고 있다.

여성 참여활성화 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여성 창업기업,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내달 4일까지 '여성참여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참여활성화 과제는 자유응모 방식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총 사업비의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신청자격으로는 창업 후 7년 이하

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하인 기업이 지원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여성의 섬세함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고, 지역경제에 고부가가치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생산기술과(TEL 063-210-6443)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도내 5월중 어업생산량 감소

지난해 동월 대비 17.5% 줄어

전북지역 2016년 5월 중 어업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5월 도내 어업생산량은 2,408톤으로 2015년 5월 대비 512톤(17.5%)가 감소했다. 먼저 일반 해면어업이 1,77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4톤(18.0%) 감소했다. 주요 감소 어종으로는 반치 128톤

(70.3%), 멸치 123톤(56.2%), 강달이류 95톤(65.1%), 꽃게 84톤(46.4%) 등으로 조사됐다. 전해안식어업 또한 5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3톤(71.5%) 감소했다. 반반치에 내수면 어업 생산량은 5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톤(6.2%)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 어종은 메기 36톤(26.1%), 뱀장어 12톤(4.8%), 큰입유령 11톤(550.0%) 등으로 나타났다. /신광영기자

망고제품 '인기' ... 지난해 280% 매출 증가세

망고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7일 GS리테일에 따르면 제품명에 '망고'가 들어간 상품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13년 44.3% ▲2014년 62.3% ▲2015년 283.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2% 증가, 지속적

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가 지난해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던 '냉동망고스틱'은 지난해 250만개가 팔리던데 이어 올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30% 증가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인진수 기자

농협 창립 55주년 기념 17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

농협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건강식탁 지킴이, 우리땅 우리농산물'을 테마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전국 주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기간동안 전국의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면 수박 9kg 1만3900원, 거봉 2kg(박스) 1만2500원, 참옥수수 개당 500원 등 주요 제철농산물을 특별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국산종자로 재배한 햇오이는 N카드로 결제 시 1500원(1.5kg/방)과 2300원(3kg/방)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행사 중 15일부터 17일 사이에는 초복상품 할인전을 병행함에 따라 목우촌 통닭과 참살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N카드로 결제 시 통닭(9호/미리)은 3140원, 참살(1kg)은 24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복날 준비가 더 수월한 안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말 초복가전, 이들이 용품 모음전, 하나로마트 회원 특별 할인전 등을 통해 가공식품 및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상욱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농협 창립 55주년을 맞아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 만큼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대형마트 찾는 피서족 증가

사상 첫 5월 중순 폭염특보 발령 등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가 매년 빨라지면서 저역에 더위를 피해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도 예년 같은 기간 대비 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문화센터 여름학기 저녁 7시 이후 강좌 회원은 2014년 2만 1200여 명, 2015년 2만2800여 명에서 올해 2만3500여 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3년간 19%가 늘었다.

특히 이중 건강 및 댄스 강좌 회원 증가는 54%에 달했다. 단순히 시원한 공간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이열치열'로 건강을 챙기려는 고객이 크게 늘어난 현상이다. 실제 대형마트 육상에서 풋살을 즐길 수 있는 서수원점 풋살파크의 6월 저녁 7시 이후 고객도 5월 대비 47%나 늘었다. /인진수 기자

이스타항공, 상반기 신입승무원 최종 면접

7~8일 전주한지산업센터서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은 2016년 상반기 마지막 신입승무원 면접을 7~8일 양일간 실시한다.

총50여명의 객실안전승무원을 채용하는 이번 채용에는 4,7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약 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개 채용에는 일반전형 외에도 전라북도도와 전주교통노동조합이 주최한 지역인재 발굴 오디션 '잡영 챌린지 Job Young Challenge'와 다문화 가정 특별 전형, 보훈대상자 및 소년 소년가장 특별전형 등 다양한 전형으

로 승무원들을 모집해 면접을 진행한다.

특히 전북지역 응시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현장 면접제를 도입해 전주시청지원으로 전주한지산업센터에서 면접을 지원자들 동시 진행한다.

1차 면접 후 2차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스타항공 김정식 대표는 "전북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 전북지역 응시 면접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전북개발공사, 공동주택

주부 모니터 본격 활동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7일 '제2기 공동주택 주부모니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주부모니터는 지난 6월 도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 미만 주부를 대상으로 2주간 지원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민선지구 B-2B 공공임대주택, 입실 및 장수 농어촌현대주택에 대하여 마감공정의 품질점검 뿐만 아니라 설계단계까지 참여하게 된다. /신광영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